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이스라엘의 회복

(미가 4:6-13)

원로목사 이종윤

1. 구원의 날

그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집권자들이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는데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그들을다스리리라"(7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갔을 때 발을 저는 사람들처럼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버림을 받았습니 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이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과 같이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할 자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났던 자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그 날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의 회복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8절).

'너',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지키는 망대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열국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은 딸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의 전성기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때의 영광과 솔로몬 왕때의 권능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딸 예루살렘과 같이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망대처럼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일은 결코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 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9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해산하는 여인 처럼 고통 뿐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 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 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10 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종종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 니다. 사도바울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 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난을 잘 이기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며 구원의 체험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교회의 승리

"이제 많은 이방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 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하거니와"(11절).

이방사람들은 시온을 치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 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방사람들은 교회가 가끔 넘어지고 실패할 때 기뻐합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이 유는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는 구원의 반 열에 올려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실의에 빠지고, 이제 는 소망이 없다고 낙담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 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최후는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때리시려고 모으셨는데 그들 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못합니다(12절).

이제 딸 시온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 어나 모든 이방과 모든 악한 세력을 치라고 하십니다 (13절). 교회는 결국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종윤/홍순복 오정수/이영희 박정선/김남순 노송성/이영옥 임훈규/정경자 민순구/이영희 시무장로 17명 일동 (노문환 서문석 이관규 임상현 조정식 하인선 오광환 양춘경 최광성 이계홍 이강진 오치열 송인권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홍일성) 부목사일동 직원일동 김광욱/서영희 김성준/김선영 이동기 전광영/김인숙 오윤걸/김민아 정철웅/오선혜 오명걸/이수민 오형철/신동기 차영도/정미연 김정두 김형상/최금숙 이상섭 송재현/선순례 김광태/최종희 김희동 이영조/이영자 김양숙 전원순 채혜숙 이옥수 서상근/김예환 서바람 김동진/박진주 하영인/이경진 하혜심/김관섭 하상영 4교구일동 백영자 곽태수 전도회연합 1·2권사회 한나전도회 안홍희/전화진 이겸손/이진영 박현미 최지훈 황선희 백승경 송성태/최정숙 홍석현 김애리 차영도/정미연 선혜영 노병호/ 홍지나 황병석/김영숙 김정열 김백겸 김유경 조경숙 조정옥 박미현 조서현 배도환/석춘희 서

춘식/김진숙 김정순6 김웅기 전성희 지성철/유묘종 최원자 김범수 김상식/이순례 전인숙1 문옥희 한옥순 유운순 오후근 이병천 최숙희 김찬웅/황재연 주화인 조상환/전광환 이미경 유외숙 박정자 민의량 강남희 전용순 윤종현1 홍성미 김혜식 한도연 김혜영 한상준 최종금 김명심 유형서/제오복 김정제 김정희2 강애자 우선자/홍혜련/홍혜란 이선희 하극수/조영자 김선우/이성희 임선철/이영주 박복순 최명남/김지우 유영경 김영희/이현정 유은경 김미영 홍석현 이성우 이범석 박광훈/이진문 김지수 김영정 이순형 정현구/최복희 한정원 김재수 윤진숙 이진희 박해옥 박수옥 김진달 강경아 김종자/박진희 김수호 예완식/송금자 김경숙 양세현/이인숙 정복순 주원순 임경락/김혜중 허미옥 신항범 호산나대 학교직원 일동 김숙자 한정원 심상필 이민희 김형배/고정숙 김승록/전미경 이재윤 유남식 김민아 윤봉준/김명화 최근자 무명32명



금주의 사명자대회 성경통독표

10/30 (월)	롬13	롬14	롬15	롬16	고전 1	고전 2	고전 3	-
10/31 (화)	고전 4	고전 5	고전 6	고전 7	고전 8	고전 9	고전 10	-
11/1 (수)	고전 11	고전 12	고전 13	고전 14	고전 15	고전 16	고후 1	-
11/2 (목)	고후 2	고후 3	고후 4	고후 5	고후 6	고후 7	고후 8	-
11/3 (금)	고후 9	고후 10	고후 11	고후 12	고후 13	갈1	갈2	-
11/4 (토)	갈3	갈4	갈5	갈6	엡1	엡2	엡3	엡4

▲ '성경통독표는 매주 절취선대로 잘라서 본당 앞 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 서울교회 정성화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제 1·2 권사회에서는 18가지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리리장을 판매하여 재료비 포함 수익금 전액을 교회에 드렸다.



영아부 예배

교회의 혼란으로 잠시 멈추었던 영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

영아부(부감 이갑연 권사)는 11월 5일 주일부터 영아부실(402호)에서 드린다. 아기는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은 본당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또한 영아부를 섬기실 교사(여)를 모집한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 기증받아

지난 10월 26일(목) 우리 교회는 한국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원장 서창원 목사)으로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 500권을 기증받았다.

Bus Metro Walking

운동에 동참합니다!

수능기도회

토요기도회

11월 11일 (토) 오전 10시 / 501호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40분 / 101호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 504호

고등부(부장:정현구 집사)는 2018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두차례 갖기로 하였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1. 토요기도회 : 11월 11일 (토)

오전 10시 501호

2.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40분

또한 중·고등부는 학부모 기도회를 매 주일 12시 40분, 2부 예배 후 504호에서 모이고 있다. 자녀 혹은 손자녀를 위해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1.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2.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3.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6.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은 수험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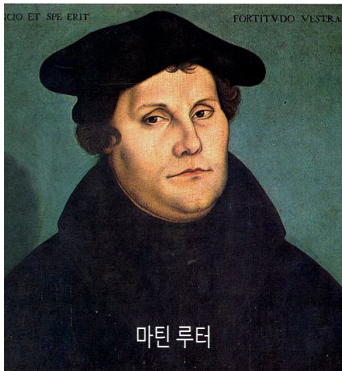
(수험생 도고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순례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늘 개혁을 요구한다

종교개혁 기념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다. 교회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마르틴 루터는 매우 깊은 고민을 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안 하는 이유는 교황청에 판매하는 면죄부 때문이었다. 루터가 살던 시골 도시 비텐베르크에서는 면죄부를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웃 도시까지 가서 면죄부를 구입해 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 면죄부를 가졌으니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면제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면죄부 판매 수입은 교황청이 로마의 베드로성당 건축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주교가 되기 위한 뇌물 자금으로 쓰였다.



마틴 루터

가톨릭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틴 루터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옥탑방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교황청을 향해 매우 날카롭게 95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교황은 왜 자신의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가! 교황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백성들에게는 평화 없지 않은가" 라고 했다. 루터가 겨누는 것은 500년 전의 유럽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속화 되는 교회와 십자가 대신 면죄부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루터의 '95개 논제'는 순식간에 퍼졌다. 독일 시골 마을의 사제 교수가 써붙인 종이 한 장이 '중세교회

의 뇌관'이 되었다.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6월 15일자로 루터에게 교서(파문 경고장)를 내렸다. 교황은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다니다며 루터의 저술을 불태웠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교서를 참나무 아래서 태워버렸다. 제국의회는 루터에게 '철회'를 요구했고, 루터는 당당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건 구원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그 시간은 사제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등지는 순간이었다. 교황은 결국 루터를 파문했다. 이후 루터는 일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10개월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종교는 늘 개혁을 요구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루터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별수 없는 죄인인 인간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역시 이 땅의 일부 타락한 목사들이 단단히 한 묶을 하고 있다. 그들의 빛나던 리더십과 성경 대신 세속화된 가치관이 교회 타락을 부추기고, 복음에 대한 열정 대신 자신과 가족의 안락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 교회 안에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가만히 들어와 판을 친다.

루터는 말했다. "우리의 권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우리의 권능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온다"고...

(편집부)



비텐베르크의 문



김찬진 권사 (제2권사회장)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 만민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가 없음에도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26년 전 169명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세미나 김치세미나 농어촌100교회운동 선교사파송 비전2020 북한난민구원운동 순결운동 등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전도 빈약한지구제의 주신 목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오던 서울교회가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같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벽돌이 아닌 기도와 눈물로 서울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끈질긴 기도 끝에 얻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도 하게 하옵소서
저 깃세마네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같이 이 땅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서 서울교회도 개혁되고 회복되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더 잘 섬기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천국시민양성
중·고등부 도전! 성경 골든벨 행사를 마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조금씩 자라도록



한상욱 집사
(고등부 부림)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빠져 최근 교회 학교 중·고등부는 예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고 활발한 행사를 개최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예배와 말씀공부 등 기본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도적이었으나 다소 색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독려하시는 윤수가 지도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의로 '도전 성경 골든벨 퀴즈대회'를 10월 22일(주일) 중·고등부 오전 예배 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성경퀴즈 대회의 색채를 뿜 수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형태를 모체로 '도전 성경 골든벨 퀴즈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퀴즈 문제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성경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윤수가 목사님께서 출제를 담당하였고 중등부의 오선혜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중·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도움과 참여로 약 두 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2일 오랜만에 참신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성경지식은 어쩌면 세상 지식보다도 공부하기 더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잘 정돈된 문제를 통해 참여도를 높였고, 초보적 신앙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간간히 유머를 깃들인 퀴즈 문제도 삽입하였습니다. 골든벨(황금종)을 구하기 힘들어 대신 큼직한 징을 소품으로 준비하여 우승을 차지한 학생이 울리도록 하였고,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여 모든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높였습니다.

결과는 평소에도 교회 활동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올리며 마지막 문제가 낭독될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비단 학생들이 뿐 아니라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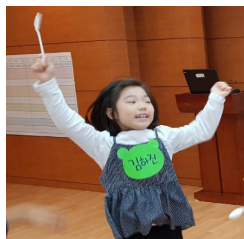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기 앞서 기초적인 구구단부터 암기하는 어린 아이의 자세와 심정으로 기도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정독하며 연구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 도전 성경 골든벨 시상자

1등 : 공지혜 (고2) 학생 / 2등 : 정 건 (고2) 학생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를 마치고

가을에 열린 성경학교! 열매가 주렁주렁!



유·초등부 가을성경학교가 지난 주일(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어린이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코너 학습 3개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쇼는 만드는 것보다 퀴즈를 풀고 머리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청했어요. 코너학습 1인당 2개씩을 참여한 후 모두 모여서 활동 놀이를 했어요. 콩 나르기, 다윗과 골리앗, 우리 집에 왜 왔나?를 했어요. 자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놀이를 했어요.

동 정

■ 금주의 식사 : 박한웅 성도 신금전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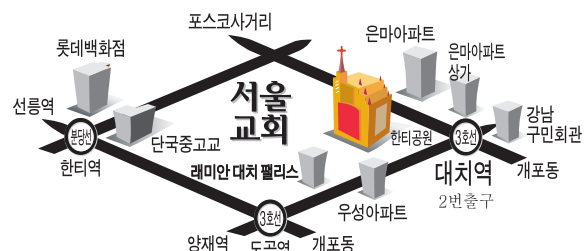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 교회로 재건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옵소서.
2.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